

“자동차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 최고 엔지니어 돼 F1 참가하고파”



‘김홍빈 초오유 원정대’ 출국



장애인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힐랄리아 초오유(8201m) 원정을 위해 22일 출국,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

김 대장은 50여 일간의 일정으로 세계 6위 고봉인 초오유 등정에 나선다.

김지수 생면부지 환자에 골수 기증



텔런트 김지수(39)가 백혈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했다.

김지수는 지난 18일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아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앞서 김지수는 2005년 뇌사지기증, 사후 각막기증, 골수(조혈모세포)기증에 서약했다. /연합뉴스

차정환 교수, 故 이경모 사진세계 조명



동신대 차정환 교수(산업디자인학과·사진)는 23일 오전 10시 장성문화원 대강당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故 이경모 교수님의 격동기의 현장’이라는 주제 특강을 갖는다.

이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질곡이 담긴 이경모 교수의 사진 세계를 조명한다.

함평 한우프라자 김정수씨 요리대회 은상



함평전지 한우프라자 김정수 조리장이 지난 18~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KLBF 2011)’ 요리명장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최형기·김소영씨 장남 환선군 김준탁·최준덕씨 장녀 민지양=27일(토) 오후 5시 웨딩의전당 금호 3층 노블레스홀.

▲영장열(광주시교육청 총무과)·조점복씨 장남 해윤군 김유관·조강화씨 장녀 윤경양=27일(토) 낮 12시 광주시 동구 산수동성당.

▲이 혁(남광건설 명예회장)·김희진씨 장남 상준(대한항공 과장)군 박봉화·최종숙씨 장녀 효이양=27일(토) 오후 1시 광주시 무등파크호텔 5층 컨벤션홀.

▲김남수(대한치과 의원장)·정숙영씨 장남 은행군 시노하라 디리히코·시노하라 스미코씨 장녀 경사양=27일(토) 오후 6시 힐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등장·동문회

▲광주상고 12회(회장 이재술) 등장 하기모임=28일(일) 낮 12시 30분 진도회관(금남로 5가 대성약국 옆) 010-6643-9200.

향우회

▲지팡 순창향우회(회장 김진곤)=29일(월) 오후 7시 싱싱민어전어식당(대인동) 062-227-2179, 019-603-9515.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금상 순천제일대학 ‘BCM’

지방의 전문대 자동차연구 동아리가 전국 명문대들을 제치고 자작자동차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제일대학 자동차기계과 학생 8명으로 구성된 BCM(지도교수 김철, 팀장 이성창)팀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새만금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2011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서 대회 준우승 겸인 Baja 내구성 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대학생들이 이룬차 엔진(125cc)을 이용,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직접 설계·제작해 가속 및 주행경기를 펼쳐 우승을 가리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0개 대학 120팀이 참가했다.

BCM팀이 제작한 ‘BCM-5’는 규격과 가속, 내구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오프로드 레이스에서 2등으로 완주하며 성능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BCM-5’는 팀장인 이성창(23)씨와 동기인 장성규(23)씨가 주축이 돼 지난 5개월여를 공들여 탄생시킨 작품이다.

이씨는 “BCM-5는 그동안 동아리 선배들이

대회에서 차가 망가지고 고장나 번번이 예선 탈락하는 모습을 보고, 안전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완주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며 “기존 모델에서 탈피해 성규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모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뭉친 두 학생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대회 완주라는 목표를 위해 도전을 계속했다. 응집 등 부족한 기술적 부분은 후배들의 힘을 빌렸고, 김철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특히 장씨는 BCM-5의 드라이버로 직접 대회에 참가했다.

장씨는 “이번 대회에 스텝으로 참가해준 후배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는 어렵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내년 대회에서는 후배들이 자동차 성능, 디자인, 드라이버의 능력과 기술 등을 모두 갖춰 우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학 졸업 후 독일에서 선진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능력을 인정받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 F1 대회에도 참가해 보는 것이 꿈이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갈고리처럼 휘어진 가지…질긴 인연 같기도



<88> 실거리나무

실거리나무는 6~7m 정도로 자라는 콩과의 덩굴성 낙엽 활엽관목으로 산기슭의 양지에서 자란다.

실거리나무는 가지가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어 실이 잘 걸리기 때문에 불여진 이름이다. 한번 걸린 실은 떼어내기가 쉽지 않아 간혹 질긴 인연(因縁)에 비유하기도 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조선대, 절강과학기술대학생 초청 문화체험



조선대가 오는 25일까지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에 설치한 한국어학당 학생들을 초청, 풍물놀이 실습·김치 담그기·전주한옥마을 탐방·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갖고 있다. /조선대 제공

광주대-中 발해대학 교수교류 활성화 등 논의



광주대 김혁중(왼쪽에서 다섯번째) 총장은 22일 학교를 방문한 중국 발해대학 양연동(왼쪽에서 네번째) 총장 일행과 학생 및 교수교류 활성화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광주대 제공

진도 임회 적십자봉사회 태풍피해 경로당 위문



진도 임회면 적십자봉사회(회장 하해정)는 최근 태풍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진도 지역 37개 마을 경로당에 국수와 설탕을 전달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시-샌안토니오시 비즈니스 파트너 되길...’

UEA 광주정상회의 앞두고 来光 캐서린 김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가 단순한 자매도시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자문역자격으로 21일 광주를 방문한 캐서린 김(50·Katherine Kimm)씨는 “4박5일간의 일정동안 광주의 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 관광산업 등을 돌아보며 양 도시간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김씨는 또 “광주로부터 너

이민 간 뒤 3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김씨는 “모처럼 고국을 찾게 돼 살레고 흥분된다”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샌안토니오 교민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광주시와 남광건설이 건립, 자매도시인 샌안토니오시에 기증한 ‘광주의 정’에 대해서는 “미국에 한국과 광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옹정하고 아름다운 정지를 둘러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캐서린 김씨는 또 “광주로부터 너

신문協 ‘일일교사 프로그램’

참가학교·학급 선착순 모집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일일교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 및 학급 100곳을 내달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일일교사 프로그램은 일선 취재현장에서 뛰고 있는 신문 기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문 제작 과정, 기사 작성법, 현장 애피소드 등 신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학급 1개 반 규모)가 참가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은 40~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 02-733-2251.

대방건설, 광산장학회에 1억 기탁



대방건설(대표 이사 구찬우)은 2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광산장학회에 기탁했다.

지난 1991년 창업 이후 20여년 만

에 100대 건설사로 성장한 대방 건설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시대를 앞서가는 품질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지난 2006년 광주 수완지구에 대방노블랜드를 선보이며 광산구와 첫 인연을 맺었으며, 수완지구와 하남지구 등에 33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구찬우 대표이사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 장학금이 좋은 사람·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

▲광주생명의 전화(실장 장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개인고객,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062-223-9191.

모집

▲무각사 엄마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 특강=26일(금), 9월 3일 오후 3시~6시, 무각사 문화관 3층, 강사 김영임(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 Maria Lisak(광주대 영어과 교수), 수강료 1만원, 062-434-9887(예약 필수)

▲리본공예 수강생=최미반, 지도자반, 참여자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아래리, 한국 가곡과 어린이 성악 클래스=2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음악클래스, 아래리·한국곡과 어린이 성악 클래스를 통해 노래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 접수는 26일(금)까지.

▲(사)우리문화예술원 통통엽서 공모=폐선부지 현푸른길공원의 사진과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모(선정되신분들에게 소정의 상품드림) 062-523-0474.

▲‘푸른길창의학교’ 하반기 무료 교육생(31일(수) 접수 마감, 영상 미디어교실 매주 금요일 09:00~12:00·미술문화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산수도서관 5층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오토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부모

▲추영호씨 별세 연길·연천·연종·순자·청자·정암·연자씨 부친상=발인 24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송영례씨 별세 정기연·국면·경숙·천숙·민숙씨 모친상=발인 23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문현규씨 별세 종석·상균·기수·종오·종배씨 부친상=발인 23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여성구씨 별세 인석·인현·정주씨 부친상=발인 23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夢福을 빙니다弔

故 진구 님(남/85세)